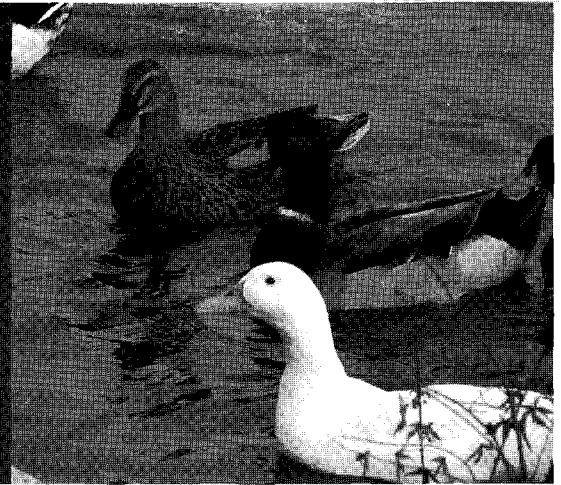


출처 : World Poultry

[중국] 오리 및 거위털 산업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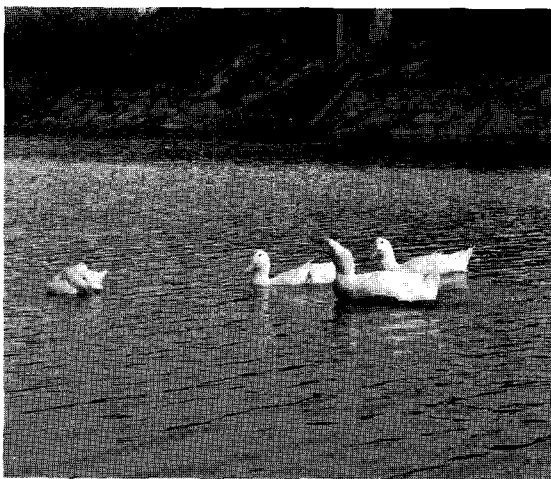


오리 및 거위털 산업이 5년 동안의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깃털 원료 공급업자 Li Fangyi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올해 최악의 손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중국 시장의 70%에 해당하는 이 깃털 생산업체는 가금 사육과 깃털 가공으로 매년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했었다.

Li는 지역 농가 등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주)Wanlida라는 깃털 가공 생산품 제조업체에 주로 납품을 해왔는데, 이번 세계적인 불경기로 7백만 위안 정도 경영 손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의류 생산업체들의 파산과 맞물려 줄이든 주문 취소로 (주)Wanlida는 Zhejiang 지역의 공장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이 회사의 주요 납품처인 (주)Pacific Coast Feather는 올해 8월 1천2백만 위안 규모의 주문을 취소했다.

“올해 상반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Li는 말했다. 다행히도 3분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250톤 정도의 신규주문도 들어왔다. “정부도 산업 회복을 위해 면세혜택과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i는 산업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적어도 3년 안에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깃털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정확한(rigid) 요구사항이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오리털옷 등에 특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거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Ji.jianhua는 거위털 공급량 증가로 현 1,300개의 군에서 4,000군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의 80%에 달하는 오리 및 거위털 생산국으로 90%가 오리털, 나머지 10%가 거위털이다. 지난 해 이 산업은 십억 달러 규모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1년 동안 가죽, 모피 관련 판매량이 15.36% 증가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8.41% 오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0.79%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